

#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리념과 주체건축의 비약적발전상이 응축된 평양의 새 경관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 준공식에 참석하시여 준공레프를 끊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펼친 웅대한 국가부흥의 설계도따라 우리식 사회주의의 문명발전을 선도하는 기념비적건축물들이 끊임없이 솟아오르고있는 속에 수도의 품치수려한 보통강기슭에 특색있는 다락식주택구가 일떠섰다.

평양에 또 하나의 천지개벽을 펼치며 완공된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는 우리 인민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최상의 물질문화적복리를 안겨주는것을 숙원사업으로 내세우는 당중앙의 인민대중제일주의리념과 주체건축의 발전전략이 응축된 새시대의 자랑찬 창조물이다.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 준공식이 4월 13일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준공식장에 도착하시자 축포가 터져오르고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4월의 봄하늘을 진감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인민에 대한 위대한 사랑과 숭고한 복무정신을 지니시고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며 우리 조국을 강대하고 문명한 인민의 제일강국으로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러 열광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조용원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가 준공사를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준공레프를 끊으시였다.

순간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울려 퍼지는 준공식장에 축포가 터져오르고 수많은 고무풍선들이 날아올라 로동당시대의 새 전설이 꽃피는 보통강반의 상공을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군중들에게 손저어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환호하는 군중속에 서있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리춘희, 최성원 책임방송원들과 로동신문사의 동태관 론설위원을 비롯한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따뜻이 축하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너무나 회한한 살림집을 받아안고 고마움의 인사를 올리는 리춘희방송원의 손을 다정히 잡으시고 그가 살게 될 경루동 7호동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령도자와 전사들간의 혈연의 정 넘치는 불멸의 화폭이 펼쳐지는 속에 끝없이 터져오르는 격정의 환호로 하여 보통강반은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리춘희방송원의

집을 찾으시여 가족방을 비롯한 살림방들을 일일이 돌아보시면서 가족들의 소감을 친어버이심정으로 정깊게 들어주시였으며 년로한 그가 집안의 총계를 오르내리면서 불편한 점이 없겠는가를 세심히 헤아려 은정어린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모든 생활상편의가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된 회한한 살림집이 꼭 호텔같다고, 당의 은덕이 너무나 고마와 온 가족이 감격의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는 로방송원의 무량없는 이야기도 기쁨속에 들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꽃나이처녀시절부터 오늘에 이르는 50여년간 당이 안겨준 혁명의 마이크와 함께 고결한 삶을 수놓아온 리춘희방송원과 같은 나라의 보배들을 위해서라면 아까울것이 없다는것이 우리 당의 진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80고

개를 앞둔 나이에도 여전히 청춘시절의 기백과 열정으로 우리 당의 목소리, 주체조선의 목소리를 만방에 울려가고있다고 그의 공로를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우리 당이 자랑으로 내세우고있는 오랜 녀성방송원들은 당의 정책과 국책, 위대한 우리 국가의 위상을 세상에 알리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있다고 하시면서 불같은 정열로 방송사업에서 성과를 계속 거두는것과 함께 우리 방송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후비육성에서도 한몫 단단히 해야 한다고, 이 책임적인 일을 당부한다는 크나큰 믿음의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리춘희방송원이 로당직장하여 앞으로도 당중앙의 대변인답게 방송사업을 활력있게 해나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고 그의 가족과 함께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은정어린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이어 최성원방송원과 동태관 론설위원의 집을 찾으시여 그들의 가족을 따뜻이 축하해주시고 한식술의 정이 흘러넘치는 사랑의 화폭을 남기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격정의 눈물속에 고마움의 인사를 거듭 올리는 새집의 주인들에게 인민을 위한 무조건적인 복무를 당풍으로 하고있는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세상이라는 말은 그 어떤 표어가 아니라, 자기의 주권을 자기의 손으로 역세게 떠받드는 우리 인민은 이 땅의 모든 문명과 행복을 마땅히 누리야 할 당당한 주인들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뜻깊은 태양절을 계기로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체취가 어려있는 터전에 일떠선 인민의 호화주택구를 준공하고보니 수령님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후손들이 수령님의 뜻대로만 사는것은 마땅한 도리이고 숭고한 의무라고 하시면서 우리 당

은 수령님의 녀민대로 한것뿐이라고, 아마도 오늘 우리 수령님께서 자신의 저력이 철거된 대신 그 들안에 애국자, 공로자들의 행복넘친 보금자리가 마련된것을 아쉬워만족해하실것이라고, 한생토록 그처럼 사랑하신 인민을 따뜻이 품어안으신것 같이 정말 기뻐하실것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떨어지기 아쉬워 걸음걸음 따라서는 공로자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그들의 앞날을 거듭 축복해주시면서 앞으로 시간을 내어 꼭 다시 오겠다는 은정넘친 약속을 하시였다.

준공식에 이어 경루동에서 살게 될 공로자들과 가족들, 시안의 근로자들은 살림집들을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